‘위로’ 전하는 스님의 방역봉사

부산불교교육대학, 서면 상가 일대 방역 진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스님이 나섰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스님을 뵙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이 4월 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서면 일대 상가를 방문하고 방역봉사를 실시했다.

방역은 입학을 준비하는 부산불교교육대학을 비롯해 상가 3곳이며 봉사에는 학장 범혜 스님과 전문 방역봉사자 및 부산불교교육대학 졸업생 등 10여 명이 동참했다. 살균 방역은 매년 300여 명의 수강생들이 방문하는 부산불교대학 교실과 법당 순으로 먼저 진행됐다. 스님과 불자들은 강의실부터 꼼꼼하게 방역을 실시하고 법당에 있는 목탁부터 모든 집기류를 소독했다. 상가로 나간 봉사자들은 식당 1~2층 넓은 홀에 꼼꼼하게 살균제를 뿌렸다.

학장 범혜 스님은 “무엇보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상가 밀집지역인 서면 한 가운데 위치해 코로나 19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방에 협조하기 위해 개학도 늦추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 지키기에 동참하고 있다”며 “부산불교교육대학도 개학을 못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인지 주변 상가들의 아픔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 방역 봉사로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위로하기 위해 나섰다”고 전했다.

상가 방역은 총 3차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방역은 ULV 초미립자분사기를 이용한 살균제로 공간 방역을 실시하고 2차 집기류 살균과 3차 바닥까지 소독했다. 살균제는 질병관리본부 소독 지침에 명시 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 가능 제품을 사용했다. 아울러 방역 작업을 코로나19 방역 캠페인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올려 방역을 마친 안전가게임을 알렸으며 영상을 상가에 제공해 활용하도록 도왔다. 모든 방역은 무료로 진행됐다.

방역 봉사 후원을 받은 배태욱 동광식당 대표는 “길어진 코로나 19 사태로 너무나 힘겹고 어렵다. 주말에도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며 “오늘 이렇게 방역 봉사를 위해 나와 준 스님과 봉사자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린다. 힘든 시기에 스님이 직접 도움을 주시는 모습에 무엇보다 마음이 벅차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과 졸업생 10여 명은 4월 2일 부산 서면 일대 상가 방역봉사를 진행했다. 범혜 스님은 2월 26일부터 정기적으로 방역봉사를 시행 중이다.

2월 26일부터 정기 방역 진행
4월 2일에는 상가 3곳서 방역
학장 범혜 스님 등 10명 동참
요청 있으면 교회도 가서 도와
“불교 인식 변화… 마음 위로”

범혜 스님은 지난 2월 26일부터 김해지역에서 진행하는 방역 봉사에 정기적으로 나서 활동하고 있다. 김해에서 활동하는 전문 살균 방역 회사 대표가 부산불교교육대학 출신이어서 자연스럽게 인연이 됐다. 스님이 방역 봉사에 앞장서 직접 살균기를 들고 소독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 늘었다.

스님은 학원, 상가 뿐 아니라 교회까지 소독을 원하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 방역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방역 봉사 후에도 200여 곳이 방역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을 함께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일반인들도 불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소독 냄새로 방역 봉사를 기피하게 되는데 방역 현장에 스님이 앞장 선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얻는다는 것이다.

김현(27) 씨는 “사실 저는 기독교 신자인데 스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방역 봉사 하는 모습에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많지만 저로써는 시야가 많이 넓어지는 계기도 됐다”고 말했다.

김범준(30) 씨는 “현장을 다녀보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다. 힘들어 할 때 스님이 오셔서 위로를 얻는 분들을 많이 본다. 마음에 위로를 얻는 것 같다”고 밝혔다.

범혜 스님은 “코로나 19가 하루 빨리 종식되길 바란다”며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격려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 코로나19가 종식 될 때 까지 모두가 힘내고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복지재단 라오스지부 아동병원 마스크 지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라오스 지부(지부장 현담)가 3월 27일 라오스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국립아동병원에 마스크 5000매를 지원했다.

이번 마스크 지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경화상사 후원으로 진행된 ‘라오스 난치병 아동 의료 ·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아동병원 의료진 130여 명과 치료를 위해 투병 중인 환아와 보호자 등 이용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라오스 지부는 “난치병 환아들이 많은 국립아동병원의 안전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진과 환아, 보호자들을 위한 마스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라오스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식료품 구입과 병원 진료 등을 제외한 대외활동 최소화 조치가 이뤄지는 등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마스크 등 감염예방 물품이 부족해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들의 불안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라오스 국립아동병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을 위한 대표적인 치료기관으로, 복지재단 ‘난치병 환아 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라오스 지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왔다. 송지희 기자

中불교, 조계종에 마스크 · 방역기금 전달

호남성 불자기금회 25만 위안
동화선사 마스크 10만장 전달
양국불교 우호 강화 계기 기대


중국 동화선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 도움을 준 조계종에 마스크 10만장을 전달했다.

한 · 중 불교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목된다. 지난 2월 조계종과 청계사 등 한국불교계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원금을 중국에 전달한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 불교계가 이에 대한 답례로 조계종에 마스크와 구호기금을 기부했다.

중국 동화선사(주지 만행, 광동성 소관시)는 올 3월 조계종에 마스크 10만장 기부의사를 전해왔다. 기부서와 함께 ‘물 한방울의 은혜를 넘치는 샘물로 갚는다’ 는 문구를 담아, 이번 기부가 조계종의 선행기부에 대한 답례임을 드러냈다. 동화선사가 기부한 마스크 10만장은 4월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예정된 전달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됐으며, 이후 서울시와 의료시설, 각 사찰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에게 배부된다.

이에 앞서 대만 불광산사도 지난 3월 8000매 가량의 마스크를 종단에 전달했으며, 이는 조계종 산하 복지시설과 이주민 단체 등에 배부됐다.

3월26일 호남성 불자기금회(비서장 성휘)는 중국 적십자사를 통해 조계종에 25만위안(한화 4300만원)을 기탁했다. 기부금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됐다.

조계종은 “이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 위기 속에 이루어진 상호 구호의 손길은 인류의 생명과 평화를 발원하는 전 세계 불자들의 염원”이라며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이러한 가치를 기반으로 구호의 손길을 건넨 해외 불교계에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수제 면마스크로 코로나19 치유를”

태고종 전북종무원, 진안군서 면마스크 제작 봉사

지역 스님 · 불자 50명 동참
수제마스크 2200장 제작해

태고종 전북종무원 스님들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심각한 마스크 부족사태를 해결하고자 발벗고 나섰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해 부원장 도홍 스님, 총무국장 행담 스님, 교무국장 연수 스님, 포교국장 명각스 님, 재무국장 현진 스님, 교임국장 명현 스님을 비롯한 전북종무원 스님들과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 마이산 탑사 탑밴드 봉사단원, 나누우리 탑사 봉사단과 진안 자원봉사센터 봉사단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수제 면마스크만들기에 동참한 스님들은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와 공적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안군내 취약계층과 의료진, 방역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3월 23일~4월 23일까지 한달간 진안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용진)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수제 면마스크 2만장 만들기’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한 스님들은 2,200장의 필터 교체형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과 의료진, 방역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태고종 전북종무원 스님과 불자 50여 명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제 면마스크 2만장 만들기’ 자원봉사에 동참했다.

이번에 제작되는 수제 면마스크는 기존 1회용 마스크의 환경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필터 교체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취약계층의 공적 마스크의 수급불안정에 따른 고통분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 스님은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지만 모두가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마스크 만들기 봉사활동에 교구 스님들과 함께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계에서 법회와 기도를 취소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종교인의 역할에 충실하려 한다”며 “지역사회의 방역봉사활동과 취약계층과 의료인들을 위한 수제 마스크 만들기 운동은 작은 봉사활동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미자 진안자원봉사센터장은 “필터 교체형 면마스크의 제작과 보급을 위해 주말도 없이 자원봉사자들이 노력하고 있다” 며 “오늘 자원봉사활동에 태고종 스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코로나 19사태의 빠른 종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4월 2일 필터교제용 수제 면마스크 1차분 5,000장을 진안군에 전달했으며 4월 9일 현재까지 445명이 봉사에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상추재배 키트’로 어르신 고독감 완화

옥수복지관, 정서지원 프로젝트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기현)이 4월 6일 ‘찾아가는 정서 지원서비스-파이팅! 희망그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젝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키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생계와 방역을 넘어선 정서적 고립감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복지관은 이날 어르신 158명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우울증 및 치매예방을 위한 ‘화투 컬러링 활동키트’ △무력감 해소 및 여가 지원을 위한 ‘상추모종 키트’ △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3종 키트를 전달했다. 집에서 고독하게 지내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자 진행되었다.

키트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복지관에서 매주 밥도 가져다주고, 잘 있나 전화해주고, 집에서 심심할까봐 색칠종이와 상추도 가져다주어서 정말 고맙다”며 “이번 선물로 집에서도 심심하지 않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송지희 기자



학인스님부
주제 내림 사찰음식
자격 종단 기본교육기관 사미 · 사미니 학인(2인 1조)
상금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상 1팀 200만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상 1팀 150만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상 1팀 150만원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상 2팀 100만원
슬로푸드상 2팀 50만원

일반부
주제 ‘콩’을 주재료로 한 사찰음식
자격 고등학생 이상 사찰음식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2인 1조)
상금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상 1팀 200만원
한식진흥원 이사장상 2팀 150만원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상 2팀 100만원
슬로푸드상 2팀 50만원

예선 서류 접수 2020년 4월 6일(월) ~ 5월 31일(일)
본선 발표 2020년 6월 5일(금) 홈페이지 게시

본선 일시 2020년 6월 12일(금)
장소 학인스님부 : 사찰음식교육관 ‘향적세계’
일반부 :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일시 2020년 6월 12일(금) 17:00
*장소는 추후 공지

자세한 정보와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www.koreatemplefood.com

접수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팀
: (02)2031-2051 이메일 : templefood@templestay.com

유의사항
- 본선 진출작의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귀속됩니다.
- 사찰음식은 오신채 (파, 마늘, 부추, 달래, 흥거(양파)), 육류, 어류, 동물성 식품,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 시 자동 탈락됩니다.
- 부문별 참가신청 최소 6개팀 미달 시 자동 폐지됩니다.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식진흥원 Slow Food Korea 국제 슬로푸드 한국협회